

“실험정신 놓지 않고 끝없이 도전”

제자들과 둘러본 운애근 화백 10주기 회고전

8월10일까지 은암미술관...초기작부터 유작까지 38점 아카이브 눈길·유튜브 공개...제자들, 학술연구 계획도

미술관으로 제자들이 하나 둘 들어섰다. 어느 때 같은 사람으로 봄빛을 전사회 첫날. 코로나 19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주인공이 없는 전시, 제자들은 전시를 소개하는 유튜브 촬영에 참여하고, 스승의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고 감회에 젖었다.

한국화가 정산(鼎山) 운애근(1943~2010) 화백. 갑작스런 사고로 막대한 이별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황망했고, 큰 작가를 잃은 지역화단도 아쉬움이 컸다.

운애근 화백 10주기 회고전이 오는 8월1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은암미술관 초대로 유족과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 주제는 ‘공(空)-생명의 곁’이다. 전시에는 운 화백의 초기작인 1970년대 구상 작품부터 유작까지 모두 38점이 나왔다. 깨알같은 글씨로 빼곡히 채운 수첩, 방금 작업하고 난 듯한 붓과 물감,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곤충 등 그가 마지막까지 작업했던 담양 화실의 흔적까지 전시한 아카이브가 눈길을 끈다. 영상물에는 운 화백이 지금까지 열었던 전시 풍경과 그림을 설명하는 육성도 만날 수 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도전하며 새로운 작품 세계를 일궈낸 그녀는 작가로서 뿐 아니라, 1980년 전남대에 부임 후 30여년간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 내 교육자로도 자취를 남겼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이구용 전남대 교수 등 제자들과 전시장에서 만나 운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전시장에서 선생님의 수첩을 처음 봤네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전시장에 걸린 작품을 다시 보면서 새삼스레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외감도 들고 작가 정신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네요. 30대 때는 전통적인 작품을 하시고, 40대부터는 다양한 실험정신으로 석조, 전각 작업까지 아우르며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창작욕을 불태우셨습니다. 익숙한 것로부터 떠나기 위해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부치는 것은 상당한 고단하죠. 두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주저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작업을 해 오신듯합니다.”

1987년 대학에 입학하며 운 화백을 처음 만난 이구용 교수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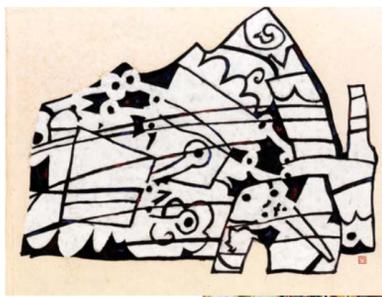
서울 출신으로 홍익대에 입학했지만 가세가 기울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출판사에서 삽화를 그렸던 운 화백은 다시 서라벌 예대(현 중앙대)에 입학,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운다. 국전에서 ‘군선’ 등의 작품으로 연이어 입상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한 그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실력을 앞세워 다양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변관식 선생에게 수묵화를, 한국화 실험미술 1세대로 꼽히는 안상철·권영우 선생을 만나며 전통과 실험을 두루 접한 그는 작품에 입체, 오브제를 활용하는

고 운애근 화백



‘공(空) - 식명정(息影亭)’



‘공(空) - 독도(獨島)’

등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했다. 장지 수집장을 열어 입체감을 부여한, ‘출발’, ‘휴식’, ‘백(白)’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된 ‘공’ 시리즈는 그의 대표

작이다. 강렬한 원색을 활용한 생명력 넘치는 화풍으로 작업을 이어가던 그는 움직임에 강조하고 상징성을 부여하며 추상성을 가미한 작품으로 한 차례 변화를 시도했고, 나중에는 색채를 모두 빼고 흰색과 검은 색만을 화폭에 배치하기도 했다.

전시작 중 두툼하게 장지를 겹겹이 부친 후 원형, 곡선 등을 자유자재로 파낸 후 독특한 추상성을 만들어 낸 ‘공-조울’은 인상적이며 채색을 극히 최소화한 ‘공-백(白)’도 눈길을 끈다. 2층에서는 인체의 율동과 에너지를 강조하는 구상 작품과 ‘담양 아저씨’ 등 다

채로운 인물화를 만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양남의 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톱은 한 쪽만 잘 들지 않지요. 가르치실 때 부드러움도 있으면서 예리한 면들이 있었어요.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쟁기질 때는 또 따뜻하게 쟁기 썩셨죠. 사실 묘사를 잘 해야만 새로운 작품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죠. 본인이 그렇게 작업을 하셨구요. 칼로 파내고 그림을 그린 겹장지 작업은 많은 공력이 들어간 작품으로 선생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죠.” (백현호 작가)

운 화백이 1990년 주도적으로 결성한 ‘전통과 형상화’ 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훈 작가는 “한국화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으로 몰음표를 찍고 ‘우리들의 그림’을 그리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셨던 것 같다”며 “수묵화가 대신 시칠, 채색화로의 변화의 물꼬를 트고, 그것을 물결로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말했다.

제자들은 앞으로 운 화백의 작품 세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람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미술관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적대화 무단인용’ 김봉곤 젊은작가상 반납

문학동네·창비, ‘시절과 기본’ ‘여름, 스피드’ 회수·환불

지인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소설에 인용해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김봉곤(사진) 작가 사태가 결국 작품 회수와 환불, 문학상 반납으로 비화됐다.

작품 내용이 논란이 돼, 이미 팔린 문학 서적을 회수·환불하고 나아가 문학상까지 반납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일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적 대화 도용이 창작의 윤리문제로 무겁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서출판 문학동네와 창비는 21일 사적인 대화 내용을 작품에 무단으로 인용해 논란이 된 김봉곤의 모든 소설 작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미 책을 구매한 독자들에게는 책값을 환불해줄기로 했다.

환불 대상 도서는 단편 ‘그런 생활’이 실린 작품집 ‘시절과 기본’ (창비)을 비롯해 문학동네에서 나온 ‘제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단편 ‘여름, 스피드’가 실린 소설집 ‘여름, 스피드’이다. 아울러 문학동네는 김봉곤 작가의 제11회 젊은작가상 반납 의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 작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해 독자, 출판사 등에 사과했다.

김봉곤 작가는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간의 모든 일에 대해 사죄드립니다”며 “제 소설로 인해 고통받은 ‘다이섹슈얼’님과 ‘0’님께 사죄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출판 관계자분, 동료 작가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여름, 스피드’에 등장하는 ‘영우’



라고 밝힌 분을 거론하며 “‘0’님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주의한 글쓰기가 가져온 폭력과 피해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사태는 지난 10일 한 여성이 자신이 김봉곤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고소란히 소설 ‘그런 생활’에 인용됐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한 남성이 자신이 ‘여름, 스피드’에 등장하는 ‘영우’라고 밝히면서 과거 김 작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소설에 인용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작가 A씨는 “사적 대화 도용은 기본적으로 창작의 윤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문제”라며 “2015년 신경숙 사태 이후 창작 윤리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등단한 김봉곤 작가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사소설 형태의 작품을 써왔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빛소리오페라단 ‘학동엄마’ 25일 온라인 생중계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이 창작오페라 ‘학동엄마’ (사진)를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지난 2015년 초연 이후 꾸준히 관객과 만나 온 이번 공연은 광주시 2020문화예술진흥민간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7월부터 11월(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총 5회 열린다.

첫 공연은 25일 열리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객으로 진행한다. 공연은 광주아트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wangjuarthall)을 통해 생중계한다.

‘학동엄마’는 광주시 동구 학동의 지역적 이야기를 소재로 평범한 여성이 9남매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여성상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협연 및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성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총감독은 광주대 교수인 최덕식 빛소리



페리단 단장이, 작곡은 한국창작작곡가협회 허걸재 회장이 맡았으며 박미애 광주대 교수가 연출했다.

또 임영란·윤희정·장호영·이원용·장희정·한아름·박정희·박정연·조현서·김용탁·김승기·김연수·류승민·김우성·김재후·김주영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227-744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생 모집

(재)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광주시 내 성평등 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단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기본과정·전문과정·심화과정·강의력증진과정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체 교육 시간은 총 80시간이다.

교육 내용은 ‘성평등 개념’, ‘여성인권의 역사’, ‘한국가족 및 친밀성의 구조변동’,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성주류화 정책’, ‘노동의 관점에서 본 성평등’, ‘이주와 여성폭력’ 등이다.

지원 대상은 여성단체 활동가 및 회원, 각 분야 전문강사, 강사활동 지원자 등 20명이며, 여성재단 전문강사 위촉 후 성평등 교육,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접수는 27일부터 8월3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8월 7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통보한다.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코로나19’ 극복...광주시립미술관, 지역미술인 긴급작품 구입

30일~8월12일 한점 500만원 상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미술인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긴급으로 작품을 구입한다.

코로나19의 파장으로 계획된 전시일정 등이 취소 또는 순연되고 유통 판매시장도 개점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긴급작품구입은 공모로 진행되며 지원 자격

은 광주 지역 출신 및 광주지역 전업 작가로 제한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작품수집 시 5년간 미술관에서 일반 구입 경력이 있는 작가 작품은 제외했으나 이번에는 구입 전후 5년이라는 제한 없이 누구나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30일부터 8월12일까지로 작가 당 1점의 공모가 가능하고 500만원 내외의 작품이 대상이다.

긴급작품구입을 위한 대상 작품은 예술적·미술사적으로 소장품 가치가 높은 우수 미술작품으로 보존 및 전시에 있어 문제가 없는 내구성과 안전성

이 양호한 작품이어야 한다.

구입 작품 분야는 회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공예, 드로잉, 판화 등 시각예술 전반이다. 작품 선정은 일반 공모와 마찬가지로 ‘작품 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액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술관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함). 문의 062-613-713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